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김한모.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김병준.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김상돈.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이주순.울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고원석.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916-368-9204 Fax: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이사야서 35:4-7	제2독서	야고보서 2:1-5	복음	마르코 7:31-37
--------	------	-------------	------	------------	----	-------------

◎말씀 <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바빌론에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귀향을 선포합니다. 장차 하느님께서 찾아오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유배 생활에서 구해주시고 고향으로 데려가실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을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머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는 혀를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이 예언에는 메시아 곧 구세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죄악과 그 결과인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며, 구세주께서 앞장서시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풀리게 해주시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듣지 못하던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말하며 사는 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가 열렸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과 전례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생활로 잘 옮겨지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합니다. 제대로 듣는 사람은 기도 중에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바칩니다. 아이들에게 흔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 뜻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듣는다면 제대로 살게 되며 하느님의 복이, 곧 은총이 뒤따를 것입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고 했습니다. 가장 큰 어른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어디 떡만 생기겠습니까?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9월11일(화)	연중 제23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280.00 \$ 1,041.00
9월12일(수)	연중 제23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153.00 \$ 142.00
9월13일(목)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학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원캠페인	\$ 116.00 \$ 236.00
9월14일(금)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 주일학교	\$ 630.00 \$ 1,260.00
9월15일(토)	고통의 성모마리아 기념일	오후7시30분	합 계	\$ 5,858.00
9월16일(일)	연중 제24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 13명 성인: 149명

교무금봉헌자 김수용.김순녀.이종만(9-10월)김승제.심은희(7-9월)최범진(5-9월)임원호.안병훈(7-8월)한승운(5월) 장신자(8월)김규철.류정임.김채홍,김운태.김옥륜.남필레.윤태옥.허형.안강순.전기례.백정심.김병준 임창순(9월)박재례(10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영원한 삶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25-26)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음을 통해 사람을 당신께 부르십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요한 16,28)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하느님에게서 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상선벌악(賞善罰惡), 자기 행위의 대가는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행실대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2코린 5,10) 이로서 하느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정에 따라 우리는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는 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든다는 것은 지복직관(至福直觀), 곧 하느님을 뵈는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한 이들이 언제나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은총과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연옥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죽었지만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못한 영혼들이 천국 복락에 들어가고자 거치는 정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지옥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느님과 영원히 결별하겠다고 선택한 이들이 겪는 것으로,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된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세상과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어 모든 인간의 소망을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대로 깨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전일본.안나의 영혼	이나숙.데레사	생		
연	전일본.안나의 영혼	셋별Pr.	생		

◎당신을 향한◎

간  
장  
종  
지

말은 얼마든지 쉽게 아름다울 수 있고  
글은 더 쉽게 고치고 화장할 수 있지만  
진정 아름다운 것은 한 인간의 순수 지향,  
진정한 사랑의 실체, 당신을 향한 하루.

마종기 노렌조 · 시인,의사/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b>Samurai Sushi</b>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Bradshaw Optometry</b>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b>1.2.3 Auto Body정비</b>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b>신세계여행사</b> 148 Grand Ave.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510)451-7487 688-0157</p>
---	---	--	---

<p><b>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b>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b>에어컨 수리</b> Air Conditioner Service &amp;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b>SNOW WHITE DENTAL</b>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b>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b>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	--

<p><b>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b>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b>Hair Story Salon</b>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b>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b>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a href="mailto:maryseo@gmail.com">maryseo@gmail.com</a>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

<p><b>JIMMY KIM GOLF SCHOOL</b>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b>최병엽공인회계사</b> Byungyeub Choi CPA &amp;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b>장의사 W.F.Gormley&amp;Sons Funeral Home</b>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a href="http://www.gormleyandsons.com">www.gormleyandsons.com</a>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	--	--

◎공동체 소식(본당의 쇠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예비신자 교리반 시작  
매주목요일 오후8시.교리실(교리서.필기구지참  
예비신자를 계속해서 인도해주세요(9월말까지)  
지속적인 전교를 실천합시다.
- 2.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6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출발  
참여단체;꼬미시움.공소미사에 함께 해주세요.
- 3.모임안내  
소화데레사; 9일(일)교중미사후.요한방  
거룩한독서;12일(수)오후7시.성당  
꼬미시움 ;16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4.본당 재정보고(17-18년결산 및 18-19년예산)  
일시;9일(일)교중미사중.성당
- 5.서중부 제23차 전체 울뜨레아(2018년)  
일시;22일(토)오전9시30분-오후3시.성당  
참가비;\$20(점심.기념품제공)  
신청;김동현(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참석바래요
- 6.추석 합동위령미사 안내  
일시;23일(일)오전11시.성당  
조상님을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주세요.(신청;전례부.사무실)  
(미사전 합동연도있으며 미사중 가족분향있음)  
(이날 9시미사 없습니다.)
- 7.본당의 날 행사안내  
일시;23일(일)교중미사후.친교실과 주차장.  
미사후 식사나눔 및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세요.  
도네이션;신부님(\$100)원영일(\$500)이주순(\$100)
- 8.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8일(금)오후7시30분.성당  
체형발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 9.여성 제12차 꾸르실료 수강안내  
일시;10월4일(목)-10월7일(일)하와이 피정센터  
신청;김동현(꾸르실료 본당간사)
- 10.무료건강검진(Health Fair) 안내  
일시;10월20일(토)오전9시.성당  
주최;새크라멘토 한인성당.한인간호사협회  
문의;김규철.레오 사회복지부장(952-836-7117)  
약품구매 및 행사경비마련을 위하여 도네이션  
및 도움을 바랍니다.
- 11.성서백주간 모임안내  
개강;10월2일(화)저녁미사후.데레사방  
신청;김선영.플로라(952-836-7157)
- 12.연도(정일본.안나;전정옥.울리안나 모친)안내  
일시;13일(목)저녁미사후.성당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13.감사합니다.  
어르신잔치 및 교리실 청소와 나무정리해주신  
복지부와 사목회 및 주일학교에 감사드려요.

<주일/한글학교 소식>

주일/한글학교 등록 및 접수  
기간;8월26일(일)-9월9일(일)성당.미사전후  
등록비;1명(\$120) 2명(\$220) 3명(\$300)  
주일/한글학교 교사 및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김형일.안드레아교장(916-365-7599)  
주일/한글학교 개학;9월9일(일)오전9시.성당  
부모님들의 관심과 인도바랍니다.

- ◎식사봉사(이번주);6구역 보조;이주순.구비아  
식사봉사(다음주); 보조;이주순.전기례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3.4구역
- ◎교구2차헌금;9일(일)모든미사  
목적:Collection for Priests Retirement
- ◎원캠페인;회장단(\$236) 잔액;\$9,500
- ◎사제관건립기금; 잔액;\$47,391.26  
목주기도;840단 합계;509,179단

화답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하여라.

전례봉사	연중제22주일(9월9일)	연중제22주일(9월16일)	연중제22주일(9월23일)	연중제23주일(9월30일)
해설	이순자, 요안나	최금주, 요안나	김은선, 제노베파	문선영, 바실리아
제1독서	이주순, 울리오	이상인, 시메온	김동현, 미카엘	이애연, 플로렌시아
제2독서	김미경, 아네스	류정임, 가브리엘라	이한상, 페트릭	엄혜진, 미카엘라
복사	김규철, 장현철	최진호, 송돈희	최준우, 허호영	송돈희, 장현철
봉헌/기도/청소	3-4구역	3-4구역	3-4구역	3-4구역
헌금위원	안강순, 고원석	송돈희, 임상일	이나숙, 정의주	이영숙, 임혜숙